

로맨티스트 환경인

차철환(車喆煥) 박사(끝)

글/사진 : 박 창 근
< 본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

지난 호, 이 지면에서 '차철환' 박사님을 Romantist 환경인이라고 지칭하여, 여러 이야기를 썼다. 특히, violinist '차철환' 박사님에 대해서 썼는데, 박사님의 violin 연주를 듣지도 않고, Henryk Szeryng나 Alfredo Campoli의 연주 소리와 같을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박위원장이 음악 점쟁이나?' 고 농담해 오신 분이 계셨다.

그 분은 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violin을 했고, 대학시절에는 violin lesson으로 학비를 보태 쓰던 것을 잘 아는 분으로, 그런 필자가 군(軍)에서 팔 하나를 잃고, 절망했었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violin 이야기를 쓰며, 마음 아프지 않았느냐는 위로였다.



그런 고통이라고 할까? violin을 평생의 업으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은 '차철환' 박사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른 일은 잘 모르겠으나, 음악의 경우는 깊이 빠지거나 좋아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恨)은 평생을 지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차철환' 박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 한을 환경의학 발전에 쏟아 부었는지도 모른다.

2회에 걸쳐, 음악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다. 필자가 음악을 좋아해서 이기도 하지만, '차철환' 박사님을 이야기함에 있어, 환경 다음에 음악 이야기를 뺄 수 없기

*** 사진설명 :**

본 월간지 1989년 1월호 '데이트라인, 한국대기보전학회-차철환 박사님과 함께' 라는 꼭지명에 게재됐던 사진임. 인터뷰 당시 한국대기보전학회 회장이셨다.

때문이다.

‘차철환’ 박사님은 항상, 조용하신 분이다. 필자의 환경보호 작업 30여 년 동안, 제일 많이 자주 뵙고 지도해 주신 분이, ‘권숙표’, ‘김준호’, ‘노용희’, ‘노재식’, ‘박노경’, ‘윤명조’, ‘이승무’, ‘차철환’ 박사님이셨는데, 단 한번도 ‘차철환’ 박사님의 언짢아하시는 표정을 뵈는 적이 없다.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무골호인(無骨好人)이시다.

그러다 보니, 박사님에 대한 사적(私的) 기록이랄까? 개인사(個人史)에 대해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싫어하실지 모르겠으나, 그저 의학을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를 창설, 운영하신 환경원로 정도로만 알고 있는 환경 후배에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간단히 정리한다.

‘차철환’ 박사님은 1928년 4월 5일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에서 태어나셨다. 목재업을 하신 부친께서 지으신, ‘고미성국민학교’와 고성읍에 있는 ‘고성남국민학교’를 다니시고, 서울 ‘경기중학교’에 입학하셨다. 말하자면 강원도 두메산골 국민학생이 서울 학교, 그것도 당시, 서울의 최고 명문 중학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박사님이 대단한 수재(秀才)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이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소위 KS표)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장으로부터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자리를 옮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동 대학교 ‘보건전문대학’ 학장, ‘환경의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이 나라 환경의학 분야를 창시(創始)하시고, 많은 기여를 하셨다.

‘차철환’ 박사님의 인생은 글자 그대로 정도(正道)의 길이였다. 인생이 그렇고, 학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다. 그래서 몇 년 전,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은 분께서 약속을 어기시고 먼저 떠나셨지만, 흐트러짐 없이 평상심(平常心)이셨고, 그 가정의 따님(둘째)답게,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달려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작년, 가을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큰 따님이 서울에서 ‘전시회’를 한다기에 ‘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과 함께, 찾아갔더니, antique lamp와 그림 액자가 전시되어 있어, 어리둥절했다. 이 lamp를 만들었다는 것인지? 액자 속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인지? 예술에 결코 무식하지 않은 것으로 자타(自他)가 인정(?)하는 필자이지만, 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뭘, 전시하는 것입니까?’ 따님이 명함을 주는데, ‘Lavis Artist 차재경’이라고 적혀있다. ‘Lavis Artist’? 점점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Lavis Artist’라면 ‘인생’(‘Lavis’가 붙어 ‘La vie’ 즉 ‘인생’의 s 복수형?) 예술가(Artist)’인가?

따님이 웃는다. 프랑스에는 ‘Lavis Artist’라는 장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전시한 lamp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lamp 전등에 씌워진 ‘갓’을 제작했고, 액자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바깥 액자(frame)와 그림 사이의 ‘매트(보통 일본식으로 ‘마트’라고도 한다)’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차철환 박사님)에게 의학적인 측면의 환경보호를 배우고, 따님에게 예술의 또 다른 분야의 존재를 배운 것이다. 부녀(父女) 2대가 필자의 지식을 살찌게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부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그 여유로운 미소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 풍진 세상에서 박사님을 뵈면, 우리의 정신도 너그러워지기 때문이다. <끝>